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 1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 2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 가신다
- 3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 4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없어라
아멘

263장 이 세상 험하고

- 1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 쓰면 큰 권능 얻겠네
 - 2 주님의 권능은 한 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 3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 4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 후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 담당

10/13(화)	10/14(수)	10/15(목)	10/16(금)	10/17(토)	10/19(월)
고평승 안수집사	류진학 안수집사	이기형 안수집사	김홍봉 안수집사	이인형 안수집사	김민수2 안수집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엡4:3, 롬12:11)

2026년 10월 16일(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성숙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67장 다 같 이
기 도 김홍봉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왕상 16:29~34 인 도 자
찬 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새벽찬양대
설 교 『악은 악을 부른다』 이성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26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왕상 16:29~34>

29 유다의 아사 왕 제삼십팔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34 그 시대에 벳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만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10월 16일(금)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예배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순간 악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작은 죄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삶이 풍요롭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가 저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삶의 가장 귀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문안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셔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이 땅에 화합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